

# 대학 경호학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Student on Department Security Programs in Universit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강민완, 김선아, 심제은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Min-Wan Kang(kmw@kgu.ac.kr), Seon-Ah Kim(hfall@hanmail.net),  
Je-Eun Shim(sje5432@naver.com)

### 요약

이 연구는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지역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판단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집된 332명의 유효 표본을 컴퓨터에 개별입력 시킨 후, Window용 SPSS 17.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 외부상황은 생활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 외부상황은 부정적 정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는 긍정적 정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 외부상황은 행복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공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경호학과 | 대학생활 적응 | 주관적 행복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in the affects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department security programs in universi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randomly sampled in Kyeong gi do in areas and 332 of department security programs student in university were finally selected. Analyses made by SPSS 17.0 have been applied to following outcome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ternal situation and psychological physical which is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lower part variable in life satisfaction appeared with positive effects. The qualitative of education which is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lower part variable in life satisfaction appeared with negative effects. Second, The external situation and psychological physical which is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lower part variable in negative emotion appeared with positive effects. The qualitative of education which is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lower part variable in negative emotion appeared with negative effects. Third, The psychological physical which is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lower part variable in positive emotion appeared with positive effects. Fourth, The external situation and psychological physical which is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lower part variable in happy appeared with positive effects. The university study of education which is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lower part variable in happy appeared with negative effects.

■ keyword : | Department Security Programs | University Life Adaptation | Subjective Well-being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도전, 요구들을 대처하고 관리해야 한다. 처음으로 대학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험이 될 것이다[13].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 전기의 발달 과업인 부모로부터의 독립, 동료집단과 어울리기, 신체적 구조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지체시켜 왔으며 대학진학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들 속에서 새로이 부딪쳐야 하는 다양한 대인관계,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자기탐색, 대학졸업후의 진로, 대학에서의 학습과 학문탐구, 결혼을 위한 준비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운 과제에 적응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김동진[3]은 대학생의 시기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준비와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는 욕구를 지닌 시기라고 하였다. 18-22세의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학교생활은 주된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지닌 자기표현을 위한 활동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생들은 대학입학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수행으로 인해 충분한 개인적 활동이 없었던 만큼 대학 입학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주관적 행복감이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기(Morale Support),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Larson[26]에 의해 제창된 개념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인정한 기준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좋다'고 평가,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타인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행복감과는 다른 개념이다. Diener[25]는 사회적 자원과 주관적 행복감으로서의 생활만족은 정적정서와 부정정서 간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경호학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체력요인[16], 수업 및 교육훈련[6][24][1][22][12] 경호영어[23], 진로관련[7], 민간경비[18], 발전방안[8][15][21], 경호탐지견[14], 생활체육활성화[19] 등의 연구가 2006년 이후 학위논문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대학생활 적응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학생유치를 위한 대학 간 치열한 경쟁 현실 속에서 각 대학 경호학과와 교육서비스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학생 각 개인이 특정한 영역에 흥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그들이 가진 성격과 그들의 사회적 환경 및 여건과 각 개인의 생활양식의 특성은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많은 대학은 생존하기 위해 학생만족을 내세우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대학 경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유체, 외부상황, 교육의 질, 대학공부, 성인학생, 일반학생 적응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생활만족,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대학 경호학과와 발전의 기초자료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지역 대학 경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

본추출방법은 경호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표집틀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 probability sampling)중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인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경기지역 소재 3개 대학 경호 관련 학과 학생으로 35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설문 배포요령을 교육시킨 보조연구자와 같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ering method)하도록 하여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8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자료는 332부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가 78.3%로 나타났다. 동거형태는 부모/자녀가 75.3%, 학년은 1학년이 43.7%, 종교는 무교가 41.6%, 경제적 지위는 중이 53.3%, 개인이 잘하는 운동종목은 구기가 42.2%, 한 달 용돈은 20-30만원미만이 33.4%, 연령은 20세이하가 37.3%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이 사용하는 한 달 용돈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경제적 지표가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은 소득수준으로 측정될 변수이지만 대학생들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제적 측면이 불완전한 계층이기 때문에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여가활동 참여[17]나 학교생활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임준택, 옥혜안[20]은 적절한 여가활동은 피로와 권태 그리고 무기건조한 생활을 전환시켜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노이로제 역시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Iso-Ahola[27]는 사람들의 고차원적인 욕구실현, 심리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 2. 측정도구

### 2.1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는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특성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260	78.3
	여자	72	21.7
동거 형태	조부모/부모/자녀	34	10.2
	부모/자녀	250	75.3
	혼자	26	7.8
	기타	22	6.6
학년	1학년	145	43.7
	2학년	135	40.7
	3학년	30	9.0
	4학년	22	6.6
종교	기독교	109	32.8
	불교	44	13.3
	무교	138	41.6
	기타	41	12.3
경제적 지위	하	32	9.6
	중하	87	26.2
	중	177	53.3
	중상	31	9.3
	상	5	1.5
잘하는 운동 종목	구기	140	42.2
	수영	15	4.5
	육상	15	4.5
	무도	117	35.2
	기타	45	13.6
한달 용돈	10만원미만	83	25.0
	10-20만원미만	75	22.6
	20-30만원미만	111	33.4
	30만원이상	63	19.0
연령	20세이하	124	37.3
	21-22세이하	90	27.1
	23-24세이하	85	25.6
	25세이상	33	9.9
	합계	332	100.0

개인 특성은 성별, 동거형태, 학년, 종교, 경제적 지위, 잘하는 운동종목, 한 달 용돈, 연령 등 8문항으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객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박진영[13]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성인학생 관계 적응 4문항, 심리육체 적응 4문항, 외 부상향 적응 3문항, 교육의 질 적응 3문항, 일반학생관계 적응 3문항, 대학공부 적응 2문항 등 6개의 하위요인 총

19문항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심리, 육체적 적응은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마음상태와 육체적 힘들에 대한 적응상태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개인 특성	성별, 동기형태, 학년, 종교, 경제적 지위, 잘하는 운동종목, 한 달 용돈, 연령,	8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 일치, 행복,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12
학교 생활 적응	성인학생 관계 적응	4
	심리육체 적응	4
	외부상황 적응	3
	교육의 질 적응	3
	일반학생 관계 적응	3
대학공부 적응	2	
계		39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Lawton[30]이 개발하고 김영우[4]가 사용한 P.G.C. morele scale 문항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생활만족 일치 6문항, 부정적정서 2문항, 긍정적정서 2문항, 행복 2문항 등 총 12문항이다. 각 항목의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1.2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의 대학생활 적응, 주관적 행복감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전문가와 관련학과 교수에게 의뢰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설문 문항의 구성과 내용의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다.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의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le componentanalysis)을, 회전방법은 직각회전 방법 중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에 의한 문항 선택은 요인부하량(factor roading)이 0.5 이상의 값들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a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신뢰

도 검증결과는 [표 3][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3]의 대학생활 적응은 6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설명력은 64.04%이다.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성인학생 관계 .772, 심리육체 .780, 외부상황 .623, 교육의 질 .353, 일반학생 관계 .645, 대학공부 .692로 나타났다. [표 4]의 주관적 행복감은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설명력은 65.8%이다.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생활만족 일치 .851, 부정적 정서 .329, 긍정적 정서 .668, 행복 .533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활 적응 요인분석 및 신뢰도

문항	성인 학생	심리 육체	외부 상황	교육 의질	일반 학생	대학 공부
II-13	<b>.791</b>	-.089	-.060	.186	.208	-.092
II-15	<b>.759</b>	-.061	-.057	.233	.185	-.088
II-16	<b>.734</b>	-.032	-.045	.038	-.010	.382
II-14	<b>.694</b>	.033	-.066	-.021	-.054	.363
II-4	-.070	<b>.778</b>	.140	-.124	-.054	.022
II-6	-.021	<b>.772</b>	.062	-.005	.015	-.159
II-5	.009	<b>.736</b>	.285	-.220	-.002	-.118
II-3	-.046	<b>.726</b>	.073	.039	-.097	-.017
II-25	-.001	.143	<b>.746</b>	.050	-.040	-.171
II-27	-.090	.235	<b>.726</b>	-.035	.030	-.077
II-26	-.141	.134	<b>.641</b>	-.211	-.134	.304
II-10	.006	-.079	.052	<b>.785</b>	.006	-.074
II-11	.185	-.075	-.065	<b>.781</b>	.154	.150
II-12	.341	-.078	-.205	<b>.577</b>	.013	.200
II-22	.153	-.010	-.143	.036	<b>.823</b>	.107
II-23	.114	-.004	-.254	.188	<b>.734</b>	.175
II-21	.008	-.122	.283	-.025	<b>.649</b>	.020
II-17	.101	-.104	-.060	.026	.105	<b>.799</b>
II-18	.165	-.138	-.011	.155	.183	<b>.744</b>
고유치	2.481	2.440	1.837	1.825	1.820	1.764
분산%	13.06	12.84	9.67	9.61	9.58	9.28
누적 분산%	13.06	25.90	35.57	45.17	54.75	64.04
신뢰도	.772	.780	.623	.353	.645	.692

3. 자료처리 및 통계방법

이 연구는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으로 회수된

설문지 중 18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332명을 SPSS WIN 17.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표 4. 주관적 행복감 요인분석 및 신뢰도

문항	생활만족일치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행복
I-10	<b>.761</b>	.198	.058	.104
I-9	<b>.759</b>	.306	.214	.103
I-12	<b>.706</b>	.008	.295	.250
I-7	<b>.697</b>	.205	.105	.333
I-11	<b>.676</b>	.339	.137	-.345
I-8	<b>.607</b>	.231	.015	.321
I-4	.234	<b>.774</b>	.166	.100
I-5	.267	<b>.753</b>	.136	.205
I-3	.091	.036	<b>.821</b>	.159
I-2	.233	.349	<b>.633</b>	.042
I-1	.226	.107	.337	<b>.696</b>
I-6	.216	.481	.005	<b>.624</b>
고유치	3.252	1.876	1.400	1.369
분산%	27.10	15.63	11.67	11.41
누적분산%	27.10	42.73	54.40	65.80
신뢰도	.851	.329	.668	.533

표 5. 상관분석 결과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생활만족	1									
부정적 정서	.578**	1								
긍정적 정서	.394**	.364**	1							
행복	.515**	.503**	.375**	1						
심리육체	.382**	.297**	.204**	.296**	1					
교육의질	-.197**	-.149**	-.084	-.108*	-.164**	1				
성인학생	-.108	-.166**	-.102	-.072	-.130*	.358**	1			
대학공부	-.201**	-.146**	-.077	-.174**	-.226**	.185**	.347**	1		
일반학생	-.134*	-.114*	-.022	-.046	-.135*	.209**	.259**	.261**	1	
외부상황	.340**	.316**	.175**	.275**	.381**	-.200**	-.193**	-.120*	-.142**	1

\* $p < .05$ , \*\* $p < .01$

### III. 연구결과

#### 1. 상관관계 분석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행렬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관계수가 1이어서는 안 된다. 상관계수가 1이라는 귀무가설(즉, 요인들이 동일하다는 의미)을 기각시키면 요인들은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9].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연구의 설문지 하위영역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값이 -.201~.578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기준인 .8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무시해도 좋다고 판단된다[2].

#### 2. 주관적 행복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R^2 = .239$ 로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생활만족을 약 23.9% 정도 설명하고 있다.  $\beta$ 값을 보면 심리육체( $\beta = .242$ ), 외부상황( $\beta = .207$ )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질( $\beta = -.204$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생( $\beta = .075$ ), 대학공부( $\beta = -.094$ ), 일반학생( $\beta = -.032$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R^2=.163$ 로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정서를 약 16.3% 정도 설명하고 있다.  $\beta$ 값을 보면 심리육체( $\beta=.171$ ), 외부상황( $\beta=.215$ )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질( $\beta=-.128$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생( $\beta=-.039$ ), 대학공부( $\beta=-.039$ ), 일반학생( $\beta=-.017$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생활적응의 생활만족 회귀분석

변인	생활만족			
	B	SE	$\beta$	t
(상수)	1.932	.357		5.407
심리육체	.254	.057	.242	4.466***
교육의질	-.202	.053	-.204	-3.798***
성인학생	.080	.059	.075	1.353
대학공부	-.091	.053	-.094	-1.735
일반학생	-.037	.059	-.032	-.619
외부상황	.230	.059	.207	3.874***

$R^2 = .239, F=16.771***$

\*\*\* $p<.001$

표 7. 대학생활적응의 부정적 정서 회귀분석

변인	부정적 정서			
	B	SE	$\beta$	t
(상수)	2.060	.413		4.992
심리육체	.198	.066	.171	3.009**
교육의질	-.139	.061	-.128	-2.270*
성인학생	-.045	.068	-.039	-.667
대학공부	-.042	.061	-.039	-.682
일반학생	-.022	.069	-.017	-.321
외부상황	.262	.069	.215	3.827***

$R^2 = .163, F=10.455***$

\* $p<.05$ , \*\* $p<.01$ , \*\*\* $p<.001$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R^2=.061$ 로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를 약 6.1% 정도 설명하고 있다.  $\beta$ 값을 보면 심리육체( $\beta=.147$ )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질( $\beta=-.064$ ), 성인학생( $\beta=-.046$ ), 대학

공부( $\beta=-.013$ ), 일반학생( $\beta=.041$ ), 외부상황( $\beta=.105$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정서 회귀분석

변인	긍정적 정서			
	B	SE	$\beta$	t
(상수)	1.839	.704		2.611
심리육체	.274	.112	.147	2.440*
교육의질	-.112	.105	-.064	-1.066
성인학생	-.086	.116	-.046	-.742
대학공부	-.023	.104	-.013	-.219
일반학생	.083	.117	.041	.708
외부상황	.206	.117	.105	1.759

$R^2 = .061, F=3.495**$

\* $p<.05$ , \*\* $p<.0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R^2=.136$ 로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행복을 약 13.6% 정도 설명하고 있다.  $\beta$ 값을 보면 심리육체( $\beta=.191$ ), 외부상황( $\beta=.186$ )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공부( $\beta=-.113$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 $\beta=-.089$ ), 성인학생( $\beta=.049$ ), 일반학생( $\beta=.036$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학생활적응의 행복 회귀분석

변인	행복			
	B	SE	$\beta$	t
(상수)	1.973	.393		5.015
심리육체	.207	.063	.191	3.299***
교육의질	-.091	.059	-.089	-1.551
성인학생	.054	.065	.049	.826
대학공부	-.114	.058	-.113	-1.969*
일반학생	.043	.065	.036	.650
외부상황	.213	.065	.186	3.261***

$R^2 = .136, F=8.424***$

\* $p<.05$ , \*\*\* $p<.001$

#### IV. 논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적극적으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 또한 대학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연[17]은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생활만족은 장기간 동안 삶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현재의 상태 혹은 바라던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의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심리육체와 외부상황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학과 학생은 심리육체와 외부상황에 대하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활만족이 현재의 상태 혹은 바라던 목표에 대한 진행과정의 평가라고 한다면 개인의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수록 개인의 생활만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와 행복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질과 대학공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 부정적 정서에 불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육체와 외부상황은 긍정적인 반면 대학의 교육의 질은 생활만족과 부정적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공부 역시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 외부상황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 대학공부는 주관적 행복감의 생활만족, 부정적 정서, 행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생, 일반학생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박진영[13]은 성인대학생들의 경우 가정 및 직장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학생이라는 역할 수행까지 겹쳐져서 그들을 둘러싼 외부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awton[29]은 주관적 행

복감은 적어도 4개 이상의 영역을 지닌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Adrews, Withey[25]는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들로 스트레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 타인에 의한 통제감, 사회적 지지, 수행정도, 이들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우울, 불안이라고 제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으로서 심리육체, 외부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박진영[13]의 연구에서 성인 대학생들은 수년 내지 수 십 년 동안 끊어졌던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심화된 교육이 진행되는 대학교육에 적응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과 학업능력의 문제점들을 대학생활 적응에 큰 장애요인이라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재학생과의 관계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 성인 대학생들과의 관계가 기존 재학생의 개인적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Diener[26]는 사회적 자원과 주관적 행복감으로서의 생활만족은 정적정서와 부정정서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류연지[11], 도무환[10]은 욕구충족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생활만족,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행복에 있어 심리육체와 외부상황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사회경향과 무관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질, 대학공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경호학과 재학생의 경우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공부에 있어 힘들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학생이나 일반학생과의 관계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분명히 다른 발달단계와 특징, 가치체계, 학습특징 등과 생활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는 별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생활 적응을 통하여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경호학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지역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판단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된 332명의 유효 표본을 컴퓨터에 개별 입력 시킨 후, Window용 SPSS 17.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 외부상황은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 외부상황은 부정적 정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는 긍정적 정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육체, 외부상황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활 적응이 경호학과 재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호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향후 전국에 산재한 경호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재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1] 강영길,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 [2]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 한나래.
- [3] 김동진, “대학생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문집, 제14권, 제1호, p.55, 1993.
- [4] 김영우, “사회적 지원망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한일비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 [5] 김영인, “한국 경비업발전 전망에 따른 경호관련 학과 교육과정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5호, 2002.
- [6] 김정만, “위기관리를 위한 경호무도 교육훈련 체제 정립방안”, 미간행박사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9.
- [7] 김종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미간행박사논문, 경기대학교 학교 대학원, 2008.
- [8] 김효준, “한국경호경비산업의 성장과 경호학과의 발전방안”, 미간행석사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8.
- [9] 노동연, “스포츠센터 서비스 공정성과 고객만족, 관계품질, 구매행동의 인과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 [10] 도무환, “테니스 동호인의 여가정체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9.
- [11] 류연지,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 [12] 박길준, “한국 민간경호 교육훈련 실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발전방안”, 미간행석사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06.
- [13] 박진영, “성인대학생용 대학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11-135, 2009.



[14] 박형규, “진도개를 이용한 효율적인 경호탐지견 운용방안”, 미간행석사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7.

[15] 안광호, “군 의전 비서요원의 전문화 방안 연구”, 미간행석사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8.

[16] 이봉우, “경호학과 학생들의 전공무도별 체력요인 분석”, 미간행석사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09.

[17] 이미연, “대학생의 여가자원과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18] 이영오, “범죄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 효율성 제고 방안”, 미간행박사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8.

[19] 임신원, “경호무도의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6.

[20] 임준택, 옥해안, “주5일 근무제 직장인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4권, 제5호, pp.789-806, 2003.

[21] 정한귀, “민간수행경호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6.

[22] 정현국,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 경호무도 수업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논문,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23] 최병권,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경호영어 능력 향상 모델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008.

[24] 허태구,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발전방안”, 미간행석사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9.

[25] F. M. Adrews and S. B. Withey,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Social Indocation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1976.

[26] E. Diener, "A value based index for measuring national quality of life", Manuscript in preparation, 1995.

[27] S. E. Iso-Ahola,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Iowa: Wm. C. Brown, 1980.

[28] R. Larson,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33. pp.109-125, 1979.

[29] M. P. Lawton, "Environment and other determinants of well-being in older people", Gerontologist. Vol.23, No.4, pp.349-357, 1983.

[30] M. Lawton,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30, No.1, pp.86-89, 1975.

저 자 소 개

강 민 완(Min-Wan Kang)

정회원



- 199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
- 2009년 1월 ~ 현재 : 한국경호경비 학회 회장
- 2006년 : 제 16회 세계대학생 유도 선수권 대회 사무총장

<관심분야> : 경호무도, 경호경비

김 선 아(Seon-Ah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용인대학교 격기학과(체육학사)
- 2003년 2월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경호학석사)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경호안전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외래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동서울대학 스포츠경호학부 외래 교수

<관심분야> : 경호경비, 경호비서, 인적자원개발

심 제 은(Je-Eun Shim)

정회원



- 2002년 2월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체육학사)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체육학석사)
- 2010년 6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박사과정수료)
- 2009년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체육학부 외래 교수  
<관심분야> : 경호무도, 경호경비